

## 일 지역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김 명 숙\* · 김 명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적당한 음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대인관계에서도 원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반면에 과음이나 습관성 음주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대학생들은 폭음과 과음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빈번한 결석이나 학습부진 등이 대학생들 자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Presley & Meilman, 1992).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서 90% 이상이 음주를 하고 있고, 1회 음주 시 하루 소주 7잔 이상을 마시는 위해음주량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남학생의 비율이 66.4%, 하루 소주 5잔(맥주 2.3병)의 음주를 한 여학생의 비율도 52.0%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Choi, Im, & Yoon, 2002). 특히 대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업이나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들이 알코올 문제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음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미리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위한 건강 관리 뿐 만 아니라 음주습관 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8).

특히 성인 음주율이 68.4%이고 대학생들의 음주율은 93%로 성인음주율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Choi et al., 2002) 음주로 인한 사망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간과되고 있어 대학생들의 음주문제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학 내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동아리나 신입생 환영회, MT 등 각종 행사에서 사발에 막걸리나 소주를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키는 일명 '사발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였으며(Jang, 2003), 어느 한 대학생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강제로 마신 술로 인해 사망한 언론보도는 대학생 음주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드러냈다고 보고되었다(Park, 2000). 술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과음이나 폭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교내 폭력, 성폭행, 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며, 또한 대학 내의 바람직하지 않은 음주문화가 신입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이런 문화가 졸업 후 직장까지 이어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Cho, 2003; Chun, Lee, Lee, & Park, 2001; Park, 2000)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음주습관 형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으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김명숙 E-mail: 629arin@semyung.ac.kr)  
투고일: 2009년 1월 31일 심사회의일: 2009년 2월 2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5일

로서(Oei, Fergusson, & Lee, 1998), 음주기대나 그 어느 음주대처자원보다도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Hasking & Oei, 2002). Kho(200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록 음주량은 높아진다고 보고함으로써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인지적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대학 내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을 확고하게 하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Kho(2006), Lee(2007)의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음주행위 영향요인(Kim, Choi, & Ann, 2004), 음주행위와 문제음주인지도 추이(Jang, 2001), 성격, 주변인의 영향, 음주동기가 음주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Kim & Lee, 2003)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학문탐구에 전념하면서 개인의 인격함양이 바탕이 된 바람직한 대학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생활 만족도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대학생활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밝혀내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만족도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증진 행위 중에서 절주운동을 확산시키고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에 소재한 일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28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편의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자료수집 시점이 1 학기가 경과되었으므로 1학년도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행사에 참여하여 음주기회를 많이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측되어 전 학년을 포함시켰다. 먼저 대학 학생처에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 장소 및 기간은 캠퍼스 내에서 가장 빈번한 출입이 이루어지는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로비에서 2008년 8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직접 본 연구목적과 방법을 구두로 설명하고, 이에 동의를 한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임을 설명하였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표기할 것과 수집된 자료에 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명시한 설문지 문구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한 후 역시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인적 사유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연구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자료 수집은 간호학과 학부생 5명으로서 본 연구자로부터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이 완료된 후 수집을 수행하였다.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총 24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8.0%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음주를 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을 의미한다(Oei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Oei, Hasking과 Young (2005)이 개발한 개정판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질문지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 revised: DRSEQ-R)를 번안하여(총 19문항) 사용한 Kho(2006)의 도구를 재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번 문항은 원 도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요인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상황요인으로 나타나 삭제됨으로써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사회적 압력 상황요인 4문항, 정서적 상황요인 7문항, 일상적 상황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 6점에서 '술을 마실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 1점까지 최고 6점에서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Kho, 2006)에서의 사회적 압력상황 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 정서적 상황요인은 Cronbach's  $\alpha = .93$ , 그리고 일반적 상황요인은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압력상황 요인의 Cronbach's  $\alpha = .86$ , 정서적 상황은 Cronbach's  $\alpha = .79$ , 그리고 일반적 상황은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생활의 질, 대학의 모든 조건, 기회, 이행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의 느낌으로 정의되었다(Kim, 2002). 본 도구는 Kim,

Lee와 Kang(1997)이 개발한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설문지를 Kim(2002)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서 가치관 요인 4문항, 자기개발요인 4문항, 대학만족요인 4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Kim, 2002)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사후검정은 Schéffe test를 시행하였다.
- 2) 대학생활 만족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정도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학생활 만족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 4) 대상자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10명(48.2%), 여학생이 118명(51.8%)이며, 연령은 '20-24세'가 203명(89.0%), '20세 미만'이 21명(9.2%), '25-29세 이상'이 4명(1.8%)의 순이었으며, 종교는 '있음'이 121명(53.1%), '없음'이 107명(46.9%)이었고, 용돈은 '20만원 이상'이 124명(54.4%), '11-19만원'이 82명(36.0%), 그리고 '10

만원 미만'이 22명(9.6%)의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자가'가 88명(38.6%), '자취'가 78명(43.2%), '기숙사'가 62명(27.2%)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은 '한다'가 99명(43.4%), '하지 않는다'가 129명(56.5%)이었다. 음주관련 특성에서 가족음주력은 '있음'이 201명(88.2%), '없음'이 27명(11.8%)으로 대부분에서 가족음주력이 있었으며, 음주빈도는 '1-3회 미만/주'이 168명(73.6%)으로 가장 많았고, '마시지 않음'이 43명(18.9%), '4회 이상'이 17명(7.5%)이었고, 음주량은 소주를 기준으로 하여 '2-3병 미만/주'이 139명(61.0%), '1병 미만'이 88명(38.6%), 그리고 '4병 이상'이 1명(0.4%)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8)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10	48.2
	Female	118	51.8
Age(yrs)	<20	21	9.2
	20-24	203	89.0
	≥25-29	4	1.8
Religion	Yes	121	53.1
	No	107	46.9
Pocket money (1,000won)	<100	22	9.6
	100-200	82	36.0
	>200	124	54.4
Residence type	Own house	88	38.6
	Alone	78	34.2
Circle activity	Dormitory	62	27.2
	Yes	99	43.4
Family history of drinking	No	129	56.6
	Yes	201	88.2
Frequency of drinking(wks)	None	27	11.8
	1-3	43	18.9
	≥4	168	73.6
Quantity of drinking(bottle)	≤1	17	7.5
	2-3	88	38.6
	≥4	139	61.0
		1	0.4

## 2. 대상자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사회적 압력상황 요인, 정서적 상황요인, 일상적 상황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를 측정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정도는 4.36점으로 사회적 압력상황 요인이 4.00점, 정서적 상황요인 3.83점, 그리고 일상적 상황요인이 5.26점이었으며, 대학생의 총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는 3.20점으로 가치관 3.43점, 자기개발 3.05점, 그리고 대학만족이 3.14점이었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대학생활 만족도는 동아리 활동( $t = .24, p = .007$ ), 음주빈도( $F = 1.75, p = .015$ ) 및 음주량( $F = 1.73, p = .019$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정 결과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이 '4병 이상/주'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이 '3병 이상'보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영역별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압력 상황요인은 성별( $t = -2.53, p = .012$ ), 동아리 활동( $t = -.31, p = .005$ ), 가족음주력( $t = -4.22, p = .041$ ), 음주빈도( $F = -20.69, p < .001$ ) 및 음주량( $F = -17.05, p < .001$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정 결과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이 '1-3회 미만/주'와 '4회 이상/주'

<Table 2>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ampus lif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n=228)

	Mean±SD	Min	Max
Satisfaction of campus life	3.20±0.40	1.95	3.95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4.36±0.80	1.99	6.00
Social pressure DRSE	4.00±0.96	1.50	6.00
Emotional relief DRSE	3.83±0.93	1.57	6.00
Opportunistic DRSE	5.26±0.82	2.25	6.00

\* DRS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Table 3〉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tisfaction of campus lif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228)

Variables	Categories	Satisfaction of campus lif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Total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Mean(SD)	t or F(p) Scheffe test	Mean(SD)	t or F(p) Scheffe test	Mean(SD)	t or F(p) Scheffe test	Mean(SD)	t or F(p) Scheffe test		
Gender	Male	3.23(0.38)	1.26(.208)	3.83(0.94)	-2.53(.012*)	3.64(0.95)	-3.11(.002**)	5.13(0.55)	-2.33(.021*)	4.20	-3.03(.003**)
	Female	3.16(0.41)		4.15(0.95)		4.02(0.89)		5.39(0.58)		4.52	
Age(yrs)	<20	3.15(0.34)	.56(.570)	3.91(0.84)	1.95(.122)	3.77(0.71)	1.59(.192)	5.11(0.56) <sup>a</sup>	3.22(.024*)	4.33(0.60)	2.52(.059)
	20-24	3.23(0.38)		4.08(0.97)		3.91(0.92)		5.35(0.65) <sup>b</sup>	c)b/a	4.45(0.78)	
	≥25-29	3.18(0.42)		3.37(0.62)		3.57(0.62)		5.52(0.76) <sup>c</sup>		4.08(0.89)	
Religion	Yes	3.20(.041)	.30(.763)	4.07(0.97)	1.34(.182)	3.96(0.93)	2.17(.031*)	5.29(0.83)	.68(.498)	4.44(0.81)	1.61(.109)
	No	3.19(0.38)		3.90(0.94)		3.69(0.91)		5.22(0.80)		4.27(0.78)	
Pocket money (1,000won)	<100	3.18(0.40)	.43(.654)	4.19(0.99)	2.13(.121)	4.20(0.86)	2.61(.076)	5.38(0.73)	2.67(.071)	4.59(0.76)	2.86(.059)
	100-200	3.23(0.38)		4.11(0.98)		3.88(0.94)		5.40(0.67)		4.47(0.77)	
	>200	3.17(0.42)		3.87(0.92)		3.73(0.92)		5.14(0.90)		4.25(0.81)	
Residence type	My house	3.22(0.41)	.13(.876)	3.94(0.98)	1.04(.365)	3.81(0.94)	1.79(.170)	5.31(0.70) <sup>a</sup>	4.21(.016*)	4.35(0.79)	2.44(.089)
	Alone	3.20(0.41)		3.93(0.97)		3.72(0.99)		4.96(0.61) <sup>b</sup>	c,a)b	4.23(0.90)	
Dormitory	Yes	3.18(0.38)		4.14(0.83)		4.01(0.81)		5.44(0.65) <sup>c</sup>		4.53(0.63)	
	No	3.50(0.43)	.24(.007**)	3.21(0.82)	-.31(.005**)	3.10(0.83)	-54(.030*)	5.19(0.81)	-1.08(.280)	3.34(0.72)	-28(.007**)
Circle activity	Yes	3.19(0.37)		4.09(0.92)		3.84(0.94)		5.31(0.83)		4.37(0.78)	
	No	3.19(0.37)		3.94(0.98)		3.66(0.92)		5.09(0.89)		4.23(0.67)	
Family history of drinking	Yes	3.20(0.40)	.03(.980)	3.99(0.93)	-4.22(.041*)	3.85(0.90)	-2.84(.094)	5.28(0.77)	-5.70(.018*)	4.38(0.76)	-8.36(.004**)
	No	3.20(0.40)		3.99(0.93)		3.85(0.90)		5.28(0.77)		4.38(0.76)	
Frequency of drinking(wks)	None	3.49(0.39) <sup>a</sup>	1.75(.015*)	4.21(0.89) <sup>b</sup>	-20.69(.000***)	4.05(0.85) <sup>b</sup>	-21.04(.000***)	5.43(0.74) <sup>a</sup>	-16.96(.000***)	4.57(0.71) <sup>a</sup>	-26.06(.000***)
	1-3	3.17(0.41) <sup>b</sup>	a/c	3.39(0.88) <sup>b</sup>	a/b/c	3.19(0.86) <sup>b</sup>	a/b	4.87(0.72) <sup>b</sup>	a/b/c	3.82(0.70) <sup>b</sup>	a/c
	≥4	2.93(0.36) <sup>c</sup>		3.29(0.84) <sup>c</sup>		3.26(0.93) <sup>c</sup>		4.56(0.63) <sup>c</sup>		3.70(0.83) <sup>c</sup>	
Quantity of drinking (bottle)	≤1	3.48(0.39) <sup>a</sup>	1.73(.019*)	4.40(0.91) <sup>b</sup>	-17.05(.000***)	4.31(0.83) <sup>b</sup>	-24.37(.000***)	5.57(0.67) <sup>a</sup>	-11.25(.000***)	4.76(0.69) <sup>a</sup>	-22.98(.000***)
	2-3	3.04(0.37) <sup>b</sup>	a/c	3.74(0.89) <sup>b</sup>	a/b/c	3.55(0.86) <sup>b</sup>	a/b/c	5.07(0.84) <sup>b</sup>	a/b/c	4.12(0.75) <sup>b</sup>	a/b/c
	≥4	2.91(0.32) <sup>c</sup>		2.00(0.03) <sup>c</sup>		1.85(0.00) <sup>c</sup>		4.50(0.76) <sup>c</sup>		2.79(0.00) <sup>c</sup>	

\*p<.05 \*\*p<.01 \*\*\*p<.001

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이 '2-3병 미만/주'와 '4병 이상/주'보다 사회적 압력 상황요인이 더 높았다. 정서적 상황요인은 성별( $t=-3.11, p=.002$ ), 종교( $t=-2.17, p=.031$ ), 동아리 활동( $t=-.54, p=.030$ ), 음주빈도( $F=-21.04, p<.001$ ) 및 음주량( $F=-24.37, p<.001$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정 결과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이 '1-3회 미만/주'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이 '2-3병 미만/주'와 '4병 이상/주'보다 정서적 상황요인이 더 높았다. 일상적 상황요인은 성별( $t=-2.33, p=.021$ ), 연령( $F=-3.22, p=.024$ ), 거주형태( $F=-4.21, p=.016$ ), 가족음주력( $t=-5.70, p=.018$ ), 음주빈도( $F=-16.96, p<.001$ ) 및 음주량( $F=-11.25, p<.001$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정 결과 연령은 '25-29세 이상', '20-24세', '20세 미만' 순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거주형태는 '기숙사'와 '자가'가 '자취'보다 일상적 상황요인이 더 높았다.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이 '1-4회 미만/주'와 '4회 이상/주'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와 '2-3병 미만/주'이 '4병 이상/주'보다 일상적 상황요인이 더 높았다.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성별( $t=-3.03, p=.003$ ), 동아리 활동( $t=-.28, p=.007$ ), 가족음주력( $t=-8.36, p=.004$ ), 음주빈도( $F=-26.06, p<.001$ ) 및 음주량( $F=-22.98, p<.001$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정 결과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이 '4회 이상/주'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 '2-3병 미만/주', '4병 이상/주' 순으로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활 만족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만족도( $r=.898, p<.0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s of satisfaction of campus lif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228)

Total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campus life	.898***

\*\*\*  $p<.001$

5. 대상자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동아리활동여부, 가족음주력, 음주빈도, 음주량,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인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제외한 변수들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다중공선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변수를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동아리 활동, 가족음주력, 음주빈도, 음주량 및 대학생활만족도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33.7%( $F=12.78, p<.001$ ) 설명하였다.

IV. 논 의

<Table 5> Predictors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n=228)

Independent variables	B	SE	$\beta$	R <sup>2</sup>	Adj R <sup>2</sup>	F	p
Gender	.072	.104	.045	.039	.035	9.207	<.001
Circle	-.018	.107	.093	.019	.004	.080	.002
Family history of drinking	.070	.162	.144	.004	.001	.973	.001
Frequency of drinking	-.390	.079	.083	.170	.167	16.395	<.001
Quantity of drinking	-.485	.098	.102	.166	.163	15.107	<.001
Satisfaction of campus life	.125	.134	.117	.006	.003	10.129	<.001
R <sup>2</sup>			.358				
Adj R <sup>2</sup>			.337				
F			12.78				
p			<.001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정도를 확인하고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대학 내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음주빈도는 주당 '1-3회 이상' 음주한 경우가 73.6%로 선행연구(Chun et al., 2001)와 비교해 보면 성인 음주율인 68.4%보다는 높았지만, 대학생 음주율인 93%보다는 낮게 나타난 것이며, 음주량이 소주를 기준으로 주당 '2-3병 이상인 경우도 61.0%로 나타나 음주율과 음주량 모두 높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어 여러 상황에서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스스로의 믿음을 높일 필요성을 지적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총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는 3.20점으로 중간 값 이상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 지역의 대학 및 학과 오리엔테이션의 완료, 학과별 지도교수의 심층 지도, 기숙사 시설 및 편의 시설, 그리고 학년별 연결고리제도 등의 요인이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정도는 4.36점으로 사회적 압력상황 요인이 4.00점, 정서적 상황요인이 3.83점, 그리고 일상적 상황요인이 5.26점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값 이상으로 나타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었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서 술을 거부하는 능력이 떨어져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되므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빈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Kho, 2006), Young, Conner, Ricciardelli와 Saunders(2006)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음주기대와 정서적 변화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음주기대 및 정서적 변화 등과 관련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Kuther와 Timoshin(2003)의 선행 연구에서 백인이나 서구 대학생들은 사회 불

안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유대관계가 보다 확고해지는 사회적 상황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으므로(Lee, 2007) 본 연구 결과에서 음주동기가 사회적 상황요인이나 정서적 상황요인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아 일상적 상황요인을 잘 관리가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일상적 압박요인은 알코올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만약 음주기대가 높은 상황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맞물린다면 과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생활에서의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요인, 우울과 같은 정서 상태 등 일상적 상황요인들을 탐색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높이려면 기존의 심리·교육적 접근 방법보다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인지적 접근으로 술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Kho(2006)의 연구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음주억제, 음주량 및 음주빈도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이들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이해하는데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음주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성별( $t=-3.03, p=.003$ ), 동아리 활동( $t=-.28, p=.007$ ), 가족음주력( $t=8.36, p=.004$ ), 음주빈도( $F=26.06, p<.001$ ) 및 음주량( $F=22.985, p<.001$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압력 상황요인, 정서적 상황요인 및 일상적 상황요인에서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음주수준을 보인다는 것과(Nolen-Hoeksema, 2004),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쉽게 음주를 하는 분위기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내 건전한 음주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고(Kho, 2006; Kim et al., 2004), 그만큼 특정상황에서의 음주억제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이 낮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리 활동여부에서는 '한다'보다는 '하지 않는다'가 사회적 압력 상황요인과 정서적 상황요인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은 음주동기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사교, 그리고 동조동기가 높은 경향이 있어(Shin, 2004)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음주빈도나 음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인지적 행동통제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가족음주력에 따라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학생의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Rhu, 2007)에서 주변인(가족, 친구)의 음주영향이 일상생활의 기능적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됨으로써(Kim & Lee, 2003) 가족음주력이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족의 음주빈도나 음주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따른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검정 결과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이 '4회 이상/주'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 '2-3병 미만/주', '4병 이상/주' 순으로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낮춤으로써 음주상황을 조절한다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생활만족도는 동아리활동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t=.24, p=.007$ ), 이는 Kim(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됨으로써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학생 생활 만족도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먼저 대학생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성별, 동아리 활동, 가족음주력, 음주빈도, 음주량 및 대학생 생활 만족도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33.7% 설명하였으므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전략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동아리 활동, 가

족음주력, 음주빈도, 음주량 및 대학생 생활 만족도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높이려면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대학생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과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줄여주는 절주운동 및 절주문화 형성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생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과 같은 음주가 취약한 상황에서 음주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 전략과 여러 상황에서의 음주억제를 할 수 있는 행동적 대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여야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대학생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효율적인 음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은 충북에 소재한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28명으로서 연구기간은 2008년 8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 way ANOVA, Sché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대학생 생활 만족도 정도는 3.20점으로 가치관 3.43점, 자기개발 3.05점, 그리고 대학만족이 3.14점이었으며,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정도는 4.36점으로, 사회적 압력상황 요인이 4.00점, 정서적 상황요인이 3.83점, 그리고 일상적 상황요인이 5.26점이었다.
2. 대학생 생활 만족도는 동아리 활동( $t=.24, p=.007$ ), 음주빈도( $F=1.75, p=.015$ ) 및 음주량( $F=1.73, p=.019$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검정 결과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이 '4회 이상/주'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이 '4병 이상'보다 대학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3.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성별( $t=-3.03, p=.003$ ), 동아리 활동( $t=-.28, p=.007$ ), 가족음주력( $t=8.36, p=.004$ ), 음주빈도( $F=26.06, p<.001$ ) 및 음주량( $F=22.985, p<.001$ )에서 차



이가 있었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정 결과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음' 이 '4회 이상/주'보다, 음주량은 '1병 미만/주', '2-3 병 미만/주', '4병 이상/주' 순으로 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만족도 ( $r = .898, p < .0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5. 일반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들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 동아리 활동, 가족음주력, 음주빈도, 음주량 및 대학생활만족도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33.7% ( $F = 12.78, p < .001$ ) 설명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 동아리 활동, 가족음주력, 음주빈도, 음주량 및 대학생활만족도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대학생활의 폐해를 감소시켜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인지적 측면에서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 본 연구는 일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를 위한 더 많은 자료수집이 요구되며, 그리고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과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지적 요인, 문제음주행동, 음주억제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Cho, H. S. (2003). *Development of the screening test for the problem drin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i, M. S., Im, M. Y., & Yoon, Y. M. (2002). A predictive model comparison by sex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2(1), 77-88.
- Chun, S. S., Lee, J. Y., Lee, Y. P., & Park, J. S. (2001).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s for problem drinking in the university. *J Korean Alcohol Sci*, 2(1), 67-114.
- Hasking, P. A., & Oei, T. P. (2002).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coping resources in predicting alcohol consumption in community and clinical samples. *Addict Res Theory*, 10, 465-494.
- Jang, S. O. (2003). Drin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rea.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myung University, *J Soc Sci*, 22(1), 109-123.
- Jang, S. O. (2001). Trends in drinking behaviors and judging norms about problem drinking, 1996-2000. *Korean J Youth Stud*, 8(2), 259-278.
- Kho, Y. M. (2006). *The relationship among drinking restrain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D. J. (2002). *Relationship among activity type, activity satisfaction, activity constrai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circ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 Kim, H. K., Choi, E. S., & Ann, J. S. (2004).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ing behavior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2), 205-216.
- Kim, I. S., & Lee, Y. H. (2003). The effects of personality, social pressure and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and drinking problems. *Korean J Clin Psychol*, 22(3), 525-541.
- Kim, J. E., Lee E. S., & Kang, S. W. (1997).

- Life satisfac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Seoul : Jipmoon.
- Kim, H. K., Choi, E. S., & Ann, J. S. (2004). Factors influencing alcohol consuming behavior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2), 205-216.
- Kim, M. O. (2008). *The drinking degree and its related factors of the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uther, T. L., & Timoshin, A. (2003). A comparison of social cognitive and psychosocial predictors of alcohol use by college students. *J Coll Stud Dev, 44*(2), 143-154.
- Lee, H. I. (2007). *The effects of motivational intervention program on social anxiety, alcohol expectancy, abstinence self-efficacy, and problematic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ju.
- Nolen-Hoeksema, S. (2004). Gender differences in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for alcohol use and problems. *Clin Psychol Rev, 24*, 981-1010.
- Oei, T. P., Fergusson, S., & Lee, N. K. (1998).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problem and non problem drinkers. *J Stud Alcohol, 59*, 104-711.
- Oei, T. P., Hasking, P. A., & Young, R. M. (2005).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A new factor structure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rug Alcohol Depend, 78*, 297-307.
- Park, J. S. (200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6*(4), 393-413.
- Presley, C. A., & Meiman, P. W. (1992). *Alcohol and drugs on American college campuses: a report to college presidents, Carbondale III:*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tudent Health Program Wellness Center.
- Rhu, M. (2007). *Effects of sociocognitive factors on binge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Shin, H. W. (2004).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development and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male students. *Korean J Dev Psychol, 17*, 141-157.
- Young, R. M., Conner, J. P., Ricciardelli, L. A., & Saunders, J. B. (2006). The role of alcohol expectancy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beliefs in university student drinking. *Alcohol, 41*(1), 70-75.

ABSTRACT

---

##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

Kim, Myoung Sook · Kim, Myo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228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atisfaction of campus life and the DRSEQ-R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PC WIN. 12.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indicating satisfaction of campus life was 3.20,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was 4.36. Satisfaction of campus lif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The gender, social circle, family history of drinking, drinking frequency, drinking quantity, and satisfaction of campus life explained 33.7% of the variance for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atisfaction of campus life is an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promot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increase satisfaction of campus life in order to prevent drinking problems.

**Key words :** Students, Drin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